

지난해 상장사 시가총액 급증… ‘삼성·SK·LG엔솔’ 최상단

코스피 3478조, 코스닥 506조
1조 클럽 76곳·10조 클럽 17곳 ↑
삼성에피스·LGCNS ‘화려한 데뷔’

작년 한 해 코스피 불장의 영향으로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장사가 76곳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환율·관세라는 악재에도 시가총액 기업들이 급증한 배경으로 두 차례에 걸친 상법개정 등 증시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인공지능(AI)으로 범용 D램 수요가 폭증하면서 반도체주가 코스피를 끌어올린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총 1조 클럽’은 2024년 말 247곳에서 지난달 30일 323곳으로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200사에서 238사로, 코스닥시



지난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전광판에 삼성전자 주가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장 상장사는 같은 기간 47사에서 85사로 늘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이 10조원이 넘는 ‘시총 10조 클럽’ 반열에 오른 종목

도 대폭 늘었다. 시가총액 10조원에 이름을 올린 곳은 작년 말 기준 62개로 전년(45개)보다 17개 증가했다.

시가총액 10조 클럽 종목 대다수

(58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였고, 코스닥 상장사는 알테오젠(약 24조원), 에코프로비엠(약 14조3000억원), 에코프로(약 12조3000억원), 에이비엘바이오(약 11조원) 등 4개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시가총액이 123.5% 급등해 ‘시총 1000조원’대를 가시권에 넣은 삼성전자(약 710조원)가 명단 최상단을 유지했다. 이어서는 SK하이닉스(약 474조원), LG에너지솔루션(약 86조원), 삼성바이오로직스(약 78조원), 삼성전자우(약 73조원), 현대차(약 61조원) 등이 뒤를 따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인적분할로 재상장된 삼성에피스홀딩스(약 18조5000억원), 작년 신규상장된 L

G씨엔에스(약 5조9000억원), 서울보증보험(약 3조5000억원), 대한조선(약 2조6000억원) 등도 시총 1조 클럽에 가입하며 화려한 데뷔에 성공했다.

이른바 ‘빌리언 달러 클럽(Billion Dollar Club)’으로 불리는 시총 1조 이상 기업은 주식 시장에선 의미 있는 기준으로 통한다. 하지만 코스피 1조 클럽에 속하는 323개사의 시총은 모두 합쳐봐도 미국 회사 한 곳의 시총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스피 1조 클럽을 포함한 전체 상장사들의 시총을 모두 합하면 약 3984조원(코스피 3478조원, 코스닥 506조원)인데, 미국 엔비디아의 시총은 4조5320억달러(약 6521조원)에 달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금융기관·단체장 신년사



“금융 대전환, 속도감 있게 추진”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안정·소비자보호’ 기본 책무 빈틈없이 수행할 것”

“2025년이 시급한 민생회복의 해였다면 2026년은 국가 대도약과 모두의 성장 원년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는 미래를 여는 생산적 금융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내겠다. 정부, 금융, 산업이 모두 힘을 합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어갈 첨단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생산적 금융 경쟁력을 키우고, 인공지능(AI) 기반 첨단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건전하게 조성하는 데에도 힘쓰는 한편, 자본시장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의 문턱은 낮추고, 부담은 덜어내는 포용적 금융도 확대하겠다. 금융소비자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개편하고, 금융회사 기여를 제도화하겠다”면서 “정책서민금융과 민간금융을 연계하고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이자 ‘정말 어려울 때 함께하는 금융’으로 거듭나도록 채무조정과 추심 관행을 개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억원 위원장은 또한 “마지막으로 금융이 국가경제의 안전판이자 국민의 청지기가 되도록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라는 기본 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겠다”면서 “가계부채, 부동산 PF, 산업재편 등 잠재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준비된 시장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금융안정을 최대한 지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



“소비자 중심 감독원칙 확립”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인력 부족 등 금감원 구조적 과제 해결 최선을 다할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공적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언론 등에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혁신기업 지원 등 ‘생산적 금융’ 전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면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돼 생산적 금융의 결실이 반감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따뜻한 금융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대출 활성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사금융·보이스비빙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을 추진·출범하고 수사당국 및 유관부처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주가 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사건 조사 속도를 높이고,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직원에도 금융환경 변화에 맞춘 전문성 강화, 소통·협력 문화 공고화, 공정·청렴 기본가치 준수 등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을 향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그에 비해 우리의 인력과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인력 부족을 포함한 구조적 과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일마당선 자세로 변화 주도”

(一馬當先)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

“포용금융 강화 필요… 소비자 신뢰 자연스럽게 축적돼야”

“금융산업은 경제의 혈액이다. 우리 경제의 회복과 새로운 도전을 위해 신뢰·포용·선도에 집중하자.”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일마당선(一馬當先·앞장서서 길을 여는 말)의 자세로 변화를 주도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신뢰 ▲포용 ▲선도에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금융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자연스럽게 축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전성의 토대 위에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전 예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포용금융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위축된 민생경제가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서민·청년·자영업자 등에 대한 맞춤형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채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포용금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회장은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통해 우리 경제의 대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생산적 금융을 확대해 산업과 기업의 혁신수요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금융산업도 자체적인 혁신과 성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고도화,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도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혁신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며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플랫폼 금융 확대 등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